

나주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개최

특별법 통과 이후 나주 발전 전략 시민과 논의 시장 비롯 600여 명 참여해 소통의 장 마련

전남 나주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 미래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행정통합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의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신정훈 국회의원 비롯해 시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윤병태 나주시장의 환영사를 시

작으로 신정훈 국회의원의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기초 강연,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재정과 권한 확대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기초 강연을 통해 그동안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특별법에 반영된 주요 특례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윤병태 나주시장과 신정훈 국회의



원이 패널로 참여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행정통합 이후 나주시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분산 배치 우려 대응 방안, 나주 교육 경쟁력 확보 대책, 지역별 기능 배치 전략, 영산강 정원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통합 이후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나주시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통합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모집 후 선정된 20

무안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명의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전남 소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기

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

우 신청할 수 있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승현 인구정책과장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완도해양치유센터서 솜품 공모전 참여하세요!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 시상 규모 확대 해양치유 국민적 관심도 제고 및 관광 활성화 기대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치유객 유입을 위해 '제2회 완도해양치유센터 솜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치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솜품에는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과 함께 완도 주요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한 영상이 담아야 하며, 개인·팀당 1점을 출품할 수 있다.

제작된 영상은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한 후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시상 규모를 확대했다.

시상 규모는 ▲1등(마스터 치유상) 100만 원 ▲2등(오션 감동상) 2명 각 50만 원 ▲3등(힐링 로고상) 3명 각 10만 원이다.

우수작은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하



며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목표적인 완도해양치유센터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시설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센터 이용객들의 생생한 체험 후기가 널리 공유되어 많은 분들이 해양치유의 효능을 느껴볼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구례군, '2026년 복지정책 전달교육' 추진

전남 구례군은 지난 16일 구례군 노인회관 강의실에서 읍면 복지팀장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복지정책 전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복지와 5개 팀의 소관별 주요 업무 계획 설명과 읍면에 협조 사항을 전달하며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특히 올해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별 욕구에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군 대덕읍 줌도리회, 사랑의 줌도리 나눔행사 개최

장흥군 대덕읍 줌도리회는 13일 대덕읍 다목적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사랑의 줌도리 운동 어르신 위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에 추진된 정남진새마을금고 대덕지점 '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모금된 현금과 쌀, 생필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주민과 금융기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모금된 성금과 물품은 행사뿐 아니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전달돼 따뜻한 희망을 전했다.

/장흥군 제공



영광군, 2026년 체험형 민방위 집합교육 실시

영광군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안전체험학습장에서 영광군 민방위 대원 1·2년차 27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안전체험학습장은 영광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집합교육은 협약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본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영광군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대원 및 민방위대장이다. 체험형 교육은 화재 대응 및 완강기 탈출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차 전복 사고 대응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들은 실제 상황을 체험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영광/이현식 기자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광안문화관광재단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6 영암 왕인문화축제

4.4.토 - 4.12.일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